

중국산 멜라민사료 파문 확산

NYT, 시아누르산 추가 검출 ... 멜라민과 시너지 독성 배가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Melamine)이 함유된 중국산 밀단백으로 제조된 펫푸드(애완동물사료)가 북미와 남아프리카에서 애완동물 집단사망을 초래함으로써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산 사료원료에서 또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5월9일(이하 현지시각) 전해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중국 당국도 5월8일 자국의 2개 사료원료 수출기업이 멜라민이 첨가된 밀단백과 쌀단백을 미국 등에 판매했음을 공식 시인했다.

중국은 당초 멜라민 함유 펫푸드 때문에 애완동물들이 대거 죽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으면서 버티다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 식품의약청(FDA) 대표단 입국을 허용해 공동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다.

그러나 FDA는 5월8일 멜라민 함유 사료가 개와 고양이 외에 일부 양돈장과 양계장에서 쓰인 것은 물론 일부 양어장에도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해 식탁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New York Times는 “펫푸드에서 또다른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제목의 5월9일자 상하이발 기사에서 이를 밝히지 않은 복수의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펫푸드에서 멜라민 외에 또다른 독성 화학물질인 시아누르산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도 앞서 문제의 펫푸드에서 멜라민 외에 시아누르산도 검출됐다면 2가지 성분이 합쳐지면 독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특히 신장에 치명타를 입힌다고 보도했다.

NYT는 코넬대학교 수의학과와 리처드 골드스타인 교수의 말을 인용해 멜라민만의 유독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나 여기에 시아누르산이 합쳐지면 독성이 대폭 강화된다고 전했다. 시아누르산이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신장 결석을 초래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NYT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남아프리카에서 리콜된 펫푸드에서 멜라민과 함께 시아누르산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FDA와 농무부 등 미국 장부당국은 5월7일 그간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제의 사료로 키워진 돼지나 닭고기를 먹었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험은 <극히 낮아 무시할만하다>는 견해를 밝혔음을 신문은 상기시켰다.

NYT는 중국의 사료원료 수출기업들이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멜라민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확인됐음을 지적하면서 “시아누르산 역시 같은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섞어온 것이 관례”임을 익명의 중국업자들이 시인했다고 전했다.

FDA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문제의 펫푸드를 먹고 애완동물이 장애를 일으킨 케이스가 1만7000건 가량 신고됐으며 약 4000마리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의 사료로 키워진 돼지는 6000마리 가량, 닭은 약 310만마리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돼지와 닭의 상당부분이 이미 식용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FDA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9>